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4



▶ 65회 예고
수상 라다굽따는 아쇼까에게 새 왕비를 들이게 해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잔혹해진 아쇼까는 궁녀들까지 살해한다. 새 왕비는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의 아름다운 큰 눈에 반해버린다.

아쇼까왕, 신하들을 살해하다

아쇼까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아쇼까왕은 밤늦게 수상 라다굽따를 침전으로 불렀다. 정궁에서는 신하들이 옆에 있으므로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침전으로 라다굽따를 부른 것이었다. 침전 정문에 있던 친위대장이 라다굽따를 발견하고는 잰걸음으로 다가왔다. 친위대장도 아쇼까가 왕위에 오를 때 칼라따까나 라다굽따 못지않게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따라서 친위대장은 아쇼까의 신임이 두터웠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수상님,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왕께서 나를 찾는다기에 급히 왔소."

"아마도 신하들 때문일 것입니다. 왕자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 이제는 알게 모르게 왕자들과 내통해 왔던 신하들이 문제입니다."

"나도 눈치는 챘소. 세상이 바뀌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소."

"왕궁이 싫으면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누렸던 온갖 혜택에 길들여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인이 있기는 하오."

왕권이 바뀐 지 3년이 지났는데 신하들 대부분이 빈두사라왕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수십 명의 왕자들에게 줄을 대서 출세를 했고, 그들을 통해서 빈두사라왕의 환심을 샀던 것이다. 그런데 왕자들과 등을 진 아쇼까가 왕위를 잇자 그러한 혜택이 사라져버렸으므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상님, 새 술의 향기와 맛을 보려면 새 항아리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오. 그러나 원한은 원한을 낳는다고 했소. 원한을 사지 않고 서서히 바꿔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친위대장은 라다굽따를 좋아하면서도 결코 의지하지는 않았다. 그는 칼라따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지위까지 오른 위인이었다. 수십 명의 왕자들이 그의 날랜 군사들에게 붙잡히어 소리 소문 없이 죽었으므로 아쇼까의 왕권이 확고해졌다고 믿는 무장이었다. 친위대장은 철저하게 칼의 힘을 믿는 신봉자였다.

아쇼까왕이 라다굽따를 맞았다. 침전 다실에는 꾸날라가 앉아서 짜이를 마시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요즘은 꾸날라가 나를 위로한다오."

"이 악기는 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공후입니다."

꾸날라가 의자 옆에 놓아두었던 공후를 집어들더니 가슴에 품으면서 말했다.

"꾸날라야, 수상이 오셨으니 이제 왕자별궁으로 돌아가거라."

"예, 친위대 조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장이 데려다 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는구나."

꾸날라가 침전 다실에서 나가고 나자, 아쇼까가 말했다.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꾸날라를 불러 공후 연주소리를 듣소."

"배은망덕한 신하들 때문에 그러하십니까?"

"그렇소. 어찌하면 좋겠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들을 지방관리로 파견하면 어떻겠습니까? 옛 아반띠국이나 앙가국, 꾸루국 등의 관리들이 현지 호족들이어서 부왕을 이용해 횡포가 자못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을 지방관리로 보내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는 시늉만 하는 신하들이 지방에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소? 그러니 기회를 보아 정리하는 것이 왕국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소."

"어떻게 정리하신다는 것인지요?"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의 눈에서 살기를 느끼고는 몸을 떨었다. 네 군데의 벽에 기름불이 켜진 침전 다실은 아쇼까의 표정이 보일 만큼 환했다. 창 반대쪽 벽면의 기름불 불꽃이 흔들렸다. 혹서기에는 항상 창을 열어두기 때문에 강가강의 강바람이 시나브로 불어왔다. 라다굽따는 얼굴에 닿는 바람결을 느꼈다. 그날따라 바람결이 예리한 칼날처럼 서늘했다. 아쇼까왕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수상께서 계책을 내놓아보시오."

"아둔한 제가 감히... 계책이 허술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하하."

아쇼까왕이 라다굽따의 완곡한 거절에 호탕하게 웃었다. 그런 뒤 술을 한 잔 하면서 말했다.

"칼라따까 수상이 그립소. 칼라따까 수상이라면 계책을 말했을 것이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모자란 저를 수상에 임명하시던 날 저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소?"

"말씀해 주신다면 더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 술이나 한 잔 드시오."

라다굽따는 자신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었다. 낮에는 주로 짜이가 나오지만 밤에는 술이 나왔다. 술상을 놓고 간 침전궁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므로 아쇼까왕이 침전궁녀의 출입을 엄금한 듯했다. 라다굽따가 술잔을 들었다가 놓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내가 칼라따까를 수상으로 연임시키지 않고 옛 까시국 부왕으로 보낸 이유가 있소."

"남은여생을 편히 보내라고 배려하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이오.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보내지는 않았소. 칼라따까는 나를 왕으로 만든 위인이오.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나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오. 그러나 왕 위에는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법이오."

"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다굽따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아쇼까왕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칼라따까를 그때그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신하들을 정리할 나의 계책은 내일 회의에서 보게 될 것이오. 신하들을 정궁에 빠짐없이 모이도록 하시오."

"예,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밖은 동굴 속처럼 컴컴했다. 라다굽따는 잠시 방향을 잃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온 탓이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라다굽따에게 친위대장이 다가와 옆에 있는 친위 군사에게 지시했다.

"수상님 댁까지 잘 모시게."

친위대장은 왕궁에 피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쇼까왕이 내일부터 정궁의 경비를 강화하라고 명했기 때문이었다. 전시가 아닌데도 그렇게 명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친위대장은 친위대 군사들에게 오늘 밤 자정 부로 비상을 발령했다. 정궁의 경계근무 강화를 위한 비상이었다.

비상이 걸리면 철저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성민들의 왕궁 출입이 성문에서부터 금지되었고, 수상 이하 모든 신하들이 친위대 조장에게 몸수색을 당했다. 아침 일찍 정궁에 들면서 몸수색을 당한 신하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오?"

"확인해 봐야 하겠소."

"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발생한 것 같소."

"나도 그런 생각이 드오."

아쇼까왕이 입장하기 전에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이 정궁 회랑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상님, 새벽에 왕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을 받았소?"

"아침 회의에서 왕명을 거역하는 신하들을 밖으로 끌고나가 목을 베라고 하셨습니다."

친위대장의 말에 라다굽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회랑 기둥에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다. 그제야 라다굽따가 겨우 짧게 한 마디 했다.

"알겠소. 입실합시다."

친위대장이 아쇼까왕에게 불려가 끔직한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아쇼까왕이 자신의 명을 거역하는 신하의 목을 먼저 치면 친위대장의 군사들도 곧바로 신하들을 궁중정원으로 끌고나간 뒤 가차없이 목을 베라는 잔혹한 왕명이었다.

이윽고 정궁 회의실에 아쇼까왕이 입장했다. 아쇼까왕 좌우로 신하들이 도열했다. 좌측에는 라다굽따 수상과 문신들이, 우측에는 친위대장과 무신들이 서열에 따라 줄을 섰다. 아쇼까왕이 좌우로 서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신하들 중에 나를 능멸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과연 그러한가?"

"대왕이시여, 어느 누가 그러하겠습니까?. 악의적인 소문일 뿐입니다."

라다굽따 옆에 있는 젊은 제관이 말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나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시험해 보겠소."

"대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정궁을 나가면 궁중정원이 있소. 정원에는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들이 있소. 오늘부터 정원 안에 가시나무를 심고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를 꺾어 울타리를 만드시오."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이 왕명거역죄로 처단하기 위해 일부러 말이 안 되는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제관이 또 아쇼까왕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대왕이시여, 울타리는 가시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궁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신하들은 긴장감에 숨이 막혔다. 아쇼까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왕명을 거역하지 말라."

문관들이 도열한 중간쯤에서 한 신하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그러한 왕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쇼까왕의 목소리가 커졌다.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세 번째 명한다.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를 꺾어 가시나무를 보호하도록 하라."

이번에는 경비대장이 아쇼까왕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아무도 왕명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왕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명거역죄를 저지르고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대의 목을 벨 수밖에 없다."

아쇼까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대장에게 다가가더니 옆구리에서 칼을 뽑아 휘둘렀다. 그러자 친위대 군사들이 일시에 회의실로 들어와 신하들을 붙잡아 갔다. 끝내 궁중정원 여기저기에 신하들의 붉은 피가 흩뿌려졌다.

아쇼까왕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꾸날라를 불렀다. 꾸날라의 공후 연주소리를 들으며 화를 삭였다. 꾸날라는 궁중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공후를 연주했다. 아쇼까왕은 공후 연주소리를 듣고 나서야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위로를 받았다.

"꾸날라야, 너는 참으로 연주를 잘하는구나."

"여러 악기 중에 저는 이 작은 공후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궁중악대장이 고른 공후란다. 마음에 들어 하니 나도 좋구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왕궁이 맞지 않습니다. 탁실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면 내년쯤 보내주마. 나도 열일곱 살에 탁실라로 갔었단다."

꾸날라는 왕궁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살해사건에 진작부터 질려 있었다. 꾸날라의 성정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왕궁생활이었다. 꾸날라는 성민들이 소박한 변방의 탁실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계속〉



